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지점을 중심으로*

이 형 진
(숙명여대)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출발어텍스트 중심적인, 오역 논의 중심적인 비평관점의 기저에 깔려있는 문화번역 패러다임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문학의 영어번역과정에서 문화번역이 발생하는 지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관한 많은 논란들은 본질적으로는 한국문학의 문학번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화번역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번역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접점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이나 오역의 차원을 넘어서, 각각의 문화가 기반을 두고 있는 헤게모니간의 충돌에서 유발되는 특수한 번역형태를 가리킨다.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서도 출발어텍스트 중심적인, 그래서 오역 논의 중심적인 번역비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503-0177).

평의 본질은 결국 문화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문학에 대한 헤게모니의 주체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문화번역’의 출발점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대치하는 일반적인 ‘번역’과는 달리,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 내는 행위’(김현미 2005, 48)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번역은 자신과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 위치한 타자와의 만남, 혹은 접점에서 생성되는 ‘낯설음’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해석하거나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낯설음’은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경계심도 유발하는 이중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낯설음’이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순수한 호기심과 진지한 관심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타자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전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각의 문화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 헤게모니나 대표성이 타문화와의 접점이나 충돌과정에서 상대적인 위계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는 결코 수평적이지 않은 역학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언어적 환대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장으로서 ‘문화번역’은 두 다른 언어의 수평이동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음’을 살피게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본격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다’(정은귀 2004, 42)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번역에서의 ‘낯설음’은 자신과 다른 타자에 대한 경계심과 헤게모니의 인지로부터 출발해서 낯선 타자와의 위계적 관계설정을 유도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헤게모니’는 그람시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지배 블록이 광범위한 대중들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지적, 도덕적으로 광범위한 지도력’을 의미하는데(이찬훈 1998, 182), 그런 면에서 ‘헤게모니’는 하나의 문화를 주도하는 소수 지배계급만이 독점하는 힘이 아니라 그 사회의 피지배집단들도 받아들인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한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는 총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국문화, 영미문화, 서구문화라는 용어에도 그 같은 헤게모니적 총체성과 대표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를 들어, 한국이 서구 문화와 맺어가는 관계의 성격과, 한국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와 맺는 관계의 성격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도 이 같은 타자와의 위계적 관계설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한국문화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의 산물은 ‘Lobster’나 ‘Fillet mignon’처럼 ‘랍스터’나 ‘필레미뇽’으로 음역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헤게모니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의 산물은 ‘Pho’나 ‘Suki’처럼 ‘베트남 쌀국수’나 ‘태국식 샤브샤브’로 대체 번역되는 사례나, ‘family restaurant’을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음역하는 경우와 ‘가족식당’으로 정확하게 의미 번역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번역 사이에 상당한 문화적 위계관계가 발생하는 상황도 단순히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수준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타문화와의 관계설정이나 수용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본질적인 헤게모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번역은 “동등한 교환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부의 담론들이 주변부로 전이되고 강요되는 번역의 역학과 구조 속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윤지관 2001, 37), 마치 칼날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문화번역’에서 각각의 문화에 내재된 헤게모니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평등한 이동이나 소통에 대한 **바램**은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담론에만 머물기 쉽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지는 문화번역의 연구초점은 헤게모니적 위계관계가 형성되는 접점 혹은 구체적인 충돌지점을 확인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이 현상과 전이방식의 분석에 맞춰지는데, 크게는 마이크로 연구와 매크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마이크로 연구는 문화번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이나, 오역을 포함한 변형 현상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학연구』에 실린 대부분의 문화번역 관련 연구들이 이에 해당하는데¹⁾, 문화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문화적 치환현상이나 개입 혹은 변형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

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조홍섭 (2000) 「영역의 사례연구: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오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203-227, 박향선 (2002) 「한국 영역시 오류 원인 분석: 2000년 전후 국내외 출간 한영대역시집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3(2): 63-79, 박진임 (2004)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한국문학 작품의 영어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97-111, 김효중 (2007) 「문학 번역과 문화적 문맥: 운동주시 영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83-105, 한미애 (2011) 「문화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황순원의 『학』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205-229, 이승재 (2012) 「문학충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번역학연구』 13(1): 137-166 등을 들 수 있다.

들이다. 이 같은 연구의 의의는 문화번역 현상의 유형과 특징을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문화번역 현상을 체계화하는데 있다. 이에 비해 매크로 연구는 문화번역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나 틀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문화번역이 발생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이 같은 전이 혹은 변형 현상을 유발하는 체계모니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화번역의 결과물이 도출된 배경과 환경에 대한 분석에서 의의를 찾는다. 본 연구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문학이 한국이라는 지형적 공간 내에서 독자적인 문화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인 체계모니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문학의 외국어, 특히 영어번역 과정에서 그리고 도착어권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착어권의 체계모니에 의해 문화번역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이 내적 체계모니를 구축하는 ‘정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실제로 문화번역의 충동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지점인 교과서와, 문학선집, 문학상,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문화번역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고,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해외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한국문학의 내적 체계모니가 전복과 해체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문화번역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국문학의 문학번역

문학번역의 정의는, 출발어 문학텍스트와 그 속에 내재된 정서적, 미학적, 문체적 특징을 다른 언어로 옮김으로써 도착어 독자로부터 유사한 문학적 공감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문화적 전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번역은 기본적으로 출발어 문학텍스트에 내재된 본질을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점에서, 문학 자체의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인 한국문학 평론가 권영민은 문학을 ‘정서적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2009, 13)이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의 ‘정서’나 ‘감정’의 구체적인 역할은 ‘문학을 통해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감각적 쾌락’(김현 1994, 25-6)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번역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공감의 재현 방식에 천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런 맥락에서 한국문학의 ‘문학번역’은 한국인의 정서적인 언어를 통해서 한국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텍스트 예술을 번역하는 행위가 되며, 한국문학의 텍스트에 투영된 한국인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공감과정을 통해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문학의 문화번역의 출발점은 한국문학의 존재가치를 전제로 하며, 이 같은 존재가치는 한국문학의 정의에 기반을 둔다. 한국문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의 존재가치도 사라지지 때문이다. 한국문학의 범주에 대한 정의는 1916년 이광수가 『문학이란 하오』에서 ‘조선문학은 한글로 쓰이거나 번역된 것이어야 한다’는 ‘속문주의’를 주창한 이래로, 이광수의 ‘속문주의’에 대항하여 독자가 조선문학 규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1930년대 김동인을 거쳐서, 1940년대 ‘우리나라의 작가가 조선어로 자기의 사상, 감정을 표현할 자유를 통해 민족문화 유지의 유일한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임화나, 『현대문학사』(1948)에서 ‘한국문학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한국사람이 한국말과 글로 표현한 작품을 뜻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박영희에 이르기까지(김동식 2010, 14-40), 크게 세 가지 필수요소, 즉 한국작가에 의해, 한국인의 정서와 경험을 주제로 삼아, 한국어로 쓰인 문학작품이라는 전제에 근거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이 구축하고자 하는 가치는 한국인의 공통적인 경험과 감정을 문학텍스트로 구현함으로써 한국인 고유의 정서의 역사성을 확보해서 공시적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유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주체의 문제다. 한국문학의 정의와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는 ‘속문주의’뿐만 아니라 작품의 창작자나 소비자를 판단 근거로 삼는 ‘속인주의’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작품 창작의 주체나, 작품에서 주체나 소재를 표출하는 행위의 주체, 그리고 작품을 공유하는 행위의 주체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학의 본질적 특징은 결국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문학’이라는 범주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인의 공통적인 경험과 정서의 역사성을 한국문학에서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 같은 공통적인 정서의 역사성을 공유함으로써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정서적 소통의 공통분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체득하고 민족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의 가치를 재확인하는데 있다. 문화적 정체성은 단순히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여권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규범적인 환경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관습, 그리고 음식이나 TV, 영화와 같이 일상적인 문화양식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과 습득, 공유를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문학은 이 같은 문화양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가 된다. 특히 문학작품은 음식이나 대중매체와 달리 필연적으로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환경과 맥락이 작품의 흐름에서 큰 축을 차지한다. 그리고 문학작품 속에 내재된 역사성의 흐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독자들을 이어주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가치가 문학텍스트를 통해 구현되고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에 실리는 문학작품들을 들 수 있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들을 모아놓은 대표선집의 역할도 중요하며,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문학상이나 시대별 베스트셀러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리는 문학작품의 경우, 무엇보다도 아직 자기결정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학의 중요한 작품들을 같이 읽고 학습하게 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일반적인 독서과정에서 볼 수 있는 독자 개개인의 역량에 바탕을 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수용이 아니라,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교육과 평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학텍스트 학습을 통해 한국문학의 역사적 전통과 의의를 피동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한국문학 정전화 교육이라는 특징이 엿보인다. 많은 학생들에게는 이 시기에 접한 한국문학이 그들의 인생에서 한국문학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시기에 학습한 한국문학작품이나 작가가 학생들이 한국문학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 한국문학의 헤게모니적 대표성이 확보되는 경우도 많다.

둘째, 문학선집은 문학작품의 가치와 중요도에 대한 평가의 결과물로서, 문학전통에 대한 인위적이고 집단적인 가치평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선집의 가장 큰 영향력은 1차적으로는 작품의 선정에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파장

은 작품의 배제에 놓여 있다. 선집에 게재된 모든 작품들이 반드시 성공적인 수용이나 대중의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집에서 배제되는 작품은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가치평가의 선별작업은 결과적으로는 의도지향적인 헤게모니적 해석 행위가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 선집은 선집에 실린 문학작품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적, 미학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혹은 공유해야 하는 당위성을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선집에 실린 작품들은 단순히 문학작품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독자와 대중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상식, 더 나아가서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재생산 수단으로도 작동한다.

셋째, 문학상의 경우, 매년 출판되는 수많은 문학작품 중에서 문학평론가들과 명망 높은 작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우수한 작품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본질적으로 문학작품의 질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집의 역할과도 유사하지만 문학상의 경우는 동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가의 주체가 일반 독자나 대중이 아니라 문학에 대해 위계적 권위를 가지는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 독자의 판단보다 더욱 우월한 문화헤게모니를 획득한다. 그리고 일반 독자는 이들 전문가들의 문화헤게모니와 수반되는 그들의 담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다. 결국 문학상은 앞서 논의한 문학선집과 마찬가지로 문학전문가들의 우월한 문화헤게모니와 가치판단을 통해 독자들에게 동시대에서 요구하는 혹은 대표하는 문학성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독자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종류의 문학적 전통과 헤게모니가 구축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베스트셀러의 경우, 한국에서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교보문고와 YES24와 같은 대형서점의 판매량을 집계해서 매주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순위 자료가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비록 출판사나 서점의 개입없이 독자들의 순수한 선택의 결과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흡입력은 문학작품에 대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독자들의 관심도와 선호도에 서열을 부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동시대적 대표

문학성'을 인지하게 하고 문학텍스트를 통해 이 같은 '동시대성'과 '대표성'을 공유하는 방법을 제시 혹은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베스트셀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대중들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선집이나 문학상에 내재된 동시대 문학전문가들의 선택이 가지는 우월적인 지적헤게모니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거부감이 상쇄되면서, 오히려 독자 자신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동시대 대중적 감성의 표출이라는 더 큰 공감과 파급력을 가진다. 동시대 베스트셀러를 같이 읽음으로써 동시대 대중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반 독자들은 자신들이 동시대적 연결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심적 안정감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대중 헤게모니의 특성을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 역할, 즉 다양한 층위에서 문학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 같은 가치 평가의 행위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징을 내포한다. 이를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문학 텍스트에 부여된 가치에 대한 일종의 계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작품을 읽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해 가치평가를 대신해주는 동시에, 이 같은 가치평가의 대행을 통해 한국문학의 대표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위의 네 가지 요소는 이들 선택된 작품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사이에 의미있는 연결고리의 구축을 시도한다. 이들 문학작품이 한국인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문학과 대표성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동시에 이들 작품의 가치를 반복하고 확대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공유해야 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한국문학의 역사와 전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 한국문학 내에서의 정전화 과정을 수행하는 동력이 된다. 즉, 문학에서의 정전화 현상은 서로 다른 언어권의 문학 사이의 번역과 수용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학 내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층위에서 발생하는 문화헤게모니의 표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일반 독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문학의 대표성이나 정체성은 대부분 위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 혹은 복수의 요소들의 영향으로 형성된 문화헤게모니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학 내에서 정전화 과정을 통해 구축된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화적 위계관계가, 한국문학이 한국 밖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도착어문화권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

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화적 위계관계와 부딪혔을 때 문화번역의 헤게모니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3.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앞서 논의한 문화번역의 정의를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대입하면 한국문학의 문화번역이 발생하는 지점은 한국문학이 영어와 같은 외국어와 만나 외국문화로 수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번역 현상에 관한 그동안의 학술논의의 대부분은 한국의 고유문화, 특히 한국의 전통이나 음식, 가족관계 등의 문화고유어가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변형 혹은 대체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문화번역에서 말하는 점점이나 충돌은 한국문학이 낯선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가성의 여부만큼이나, 서로 다른 문화적 헤게모니의 위계관계에 기인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역,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 것, 언어의 이중적 의미를 간과하지 못한 것 등이 문화번역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의사소통상의 혼돈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온 권력의 작용일 수 있다’(김현미 2005, 61-62). 즉, 한국문학 내에 구축된 문학적 헤게모니와, 한국문학이 영어번역을 통해 도착어문화권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종류의 헤게모니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역학관계가 결국 문화번역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문학의 주체성의 문제가 놓여 있다.

서론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한국문학의 정의와 정체성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한국어로 쓰인 문학작품이라는 데 담겨 있는데, 이 같은 정의와 정체성은 한국문학 내에 구축되는 내재적인 문화헤게모니를 기반으로 한다. 즉, 한국문학의 모든 작품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문학 내에서도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작품들이 위계관계를 통해 문화 헤게모니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는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보편화시키려는 시도와 피지배층의 저항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문화적 교류와 협상(타협적 평형)에 의해 구성된 영역”이라는 문화에 대한 스토리(Storey)의 정의는 적절하다(스토리 1994, 174). 그런데 이 같은 내적 헤게모니

를 이미 구축한 한국문학이 문화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문학의 내적 위계관계가 흔들리거나 전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을 둘러싼 주체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같은 헤게모니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주체성의 논란 공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3.1 문학선집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든 문학선집은 자국 문학세계에서 헤게모니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학선집은 문학전문가들의 평가에 기반해서 그 나라의 문학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문학선집은 그 나라 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문학 텍스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치감을 고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문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영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대표 문학선집으로는 『노튼 앤솔로지』를 들 수 있는데, 잉글랜드 출신의 남성작가들을 영문학 전통의 중심축에 위치시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작가를, 어떤 작품을 수록할 것인지의 편집의 권한이나, 특정 작가들이 지면상이나 기타 편집상의 배려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 같은 문학선집이 일정한 정전(canon)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윤혜준 1997, 128-129). 『노튼 앤솔로지』처럼 자신들의 문학적 전통을 선집을 통해 정전화시키는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서와 같이 도착어권에서 외국문학을 번역선집으로 만드는 과정은, 문학작품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의 가치에 더불어, 다음과 같은 다른 차원의 중요성도 함께 수반하게 된다.

첫째, 한국에서는 편집자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여러 종류의 한국문학 선집이 계속해서 발간되기 때문에 대표성이나 상징성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선집 출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출판된 영어번역선집은 일종의 독점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어번역 선집은 한국문학 선집보다 더 절대적인 대표성과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번역선집으로는 하버드대학교 한국문학 교수인 데이비드 맥캔(David McCann)이 편집한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2004)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한국문학 교수인 브루스 풀턴(Bruce Fulton)의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2005),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극과 교수인 리차드 니콜스(Richard Nichols)가 편집한 *Modern Korean Drama: An Anthology*(2009)를 손꼽을 수 있는데, 세 권 모두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이 번역선집이 가지는 대표성은 한국문학의 각각의 장르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번역선집이라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 번역선집의 상징성은 세 권 모두 미국에서 아시아문학 선집출판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아시아문학 선집 시리즈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있다.²⁾ 한국문학의 문화번역에서의 충돌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어로 출판된 한국문학 선집은 5천만 명 남짓의 한국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가진다면, 영어번역 선집은 영어 접근성을 갖춘 전 세계 수십억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주체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세계문학이라는 공간에서 한국문학의 정체성이 한국문학선집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선집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문학으로서는 문학 주체성이나 헤게모니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한국문학선집만큼이나 영어번역선집 역시 작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게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번역선집이 한국문학선집과는 다른 종류의 작품이나 작가를 선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번역선집은 한국문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는 역할

2)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아시아 문학 대표선집으로는 1,400쪽 분량의 중국 고전문학 선집인 *The Columbia Anthology of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1996)와, 800쪽 가까운 중국 현대문학 선집인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2007)를 들 수 있고, 일본 현대문학으로는 각각 900쪽 분량의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From Restoration to Occupation, 1868-1945* (2011)와,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From 1945 to the Present* (2007)가 있고, 일본 근대문학으로는 1,400쪽에 이르는 *Early Modern Japanese Literature Anthology, 1600-1900* (2004), 일본 고전문학으로는 600쪽의 *Traditional Japanese Literature: An Anthology, Beginning to 1600*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새로운 평가는 기존의 한국문학선집이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문학 내의 위계관계에 대한 해체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체계모니 간의 충돌을 유발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번역선집은 한국문학의 전통이나 체계에 대한 ‘다시쓰기’의 시도가 되기 때문에 한국문학선집에 내재된 기존의 체계모니와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앞서 언급한 세 권의 번역선집은 이 같은 대표성과 상징성에 힘입어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문학 수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재로 사용됨으로써 한국문학을 처음 접하는 미국 대학생들이나 일반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선집이 가지는 대표성이 이 같은 맥락에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문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독자들은 이 선집에 실린 작품들과 작가들을 통해 한국문학을 이해하게 되며, 이 선집에서 접한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로 관심이 확장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선집은 한국문학 내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문학의 대표성과는 다른 종류의 대표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번역선집이 구축하는 한국문학의 대표성과, 한국문학 내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한국문학의 대표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 문화번역은 불가피해진다.

셋째, 무엇보다도 문화번역의 가장 중요한 충돌지점은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의 주체성의 문제다. 다시 말해, 번역선집에 어떤 작품을 실을 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번역선집의 책임편집자라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문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영문번역선집의 편집자가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문학을 둘러싼 주체성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세 권의 한국문학 번역선집의 경우도, 맥캔, 폴턴, 그리고 니콜스 교수 모두 미국대학에서 한국문학 혹은 동아시아문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는 학자들인데, 번역선집을 통해 소개되는 한국문학 작품들과 작가들의 선정이 결국 이들 한국문학의 외국인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의 대표성에 대한 판단 주체가 한국의 문학전문가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문학을 수용하는 도착어권의 현지인 한국문학전문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보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나 평가의 차이가 결국 문화번역의 충돌지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3.2 문학상

2016년 5월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2015)이 ‘맨부커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해외 문학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든 문학상은 한 해의 대표적인 혹은 기여도가 큰 문학작품을 선정해서 그 업적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이벤트의 역할을 하는데, 부가적으로는 상을 수상한 문학작품에게 권위와 문화혜게모니를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학상 중에서 대표적인 문학상을 몇 가지 예로 들면, 한국근대소설의 거목인 김동인을 기리면서 1955년 사상계사(思想界社)에서 제정한 ‘동인문학상’, 1955년 창간된 이후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월간지 ‘현대문학’에서 수여하는 ‘현대문학상’, 1977년 문학사상사(文學思想社)가 제정한 ‘이상문학상’, 그리고 한국의 대표작가 황순원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제정된 ‘황순원문학상’등을 들 수 있다.³⁾

이 같은 한국문학의 대표 문학상의 역할은 한국문학에 대한 자체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동시대의 문학성을 가장 뛰어나게 미학적으로 표출한 작품에 대한 인정과 함께, 문학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좋은 소설에 대한 기준이라는 의의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상이 발표되면 문학상 수상작품들만 모은 수상집이 출판시장에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그만큼 문학상 수상작품들은 비평가나 작가들에게보다 일반 독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동시에, 수상작들의 계보는 결과적으로 한국문학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

3)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동인문학상’ 수상작으로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1965),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9), 김훈의 『칼의 노래』(2001)를 들 수 있고, 현대문학상의 대표작으로는 최인호의 『타인의 방』(1972), 조정래의 『유형의 땅』(1982), 한수산의 『타인의 얼굴』(1991), 김영하의 『당신의 나무』(1999), 조정래의 『좁은 문』(2003), 성석제의 『내 고운 벗님』(2004), 정이현의 『삼풍백화점』(2006)등이 있다. ‘이상문학상’에는 더욱 익숙한 이름들을 찾을 수 있다.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1978),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1979), 박완서의 『엄마의 말씀』(1981), 최인호의 『깊고 푸른 밤』(1982),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1985),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 김원일의 『마음의 감옥』(1990), 김훈의 『화장』(2004), 한강의 『몽고반점』(2005)외에도 김연수, 박민규, 공지영, 김영하, 김애란, 편혜영, 김숨 등 오늘날 대표 현대 작가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국문학의 전통을 구축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문학의 문화번역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점점 혹은 충돌지점은 바로 한국 내에서 국내 문학상이 구축해 놓은 한국문학의 전통이나 위상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해외의 문학상을 통해 구축하는 또 다른 종류의 한국문학의 위상 사이의 낯선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2015)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작가 한강의 경우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닻』으로 등단한 이후로 1995년 ‘한국일보 우수소설가’, 1999년 ‘한국소설문학상’(『아기부처』), 2000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5년 ‘이상문학상’(『몽고반점』), 2010년 ‘동리문학상’(『바람이 분다, 가라』)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편 『채식주의자』만 놓고 본다면, 2004년 제37회 한국일보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가서 ‘한국 사회 부패성에 날카로운 메스대는 시원스러운 여성소설’(최윤필 『한국일보』, 2004년 11월 16일)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07년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문단에서 『채식주의자』가 차지했던 위상이나 영향력은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여성소설이라는 테두리 안에 한정되거나, 전통적인 한국문화에서는 파격적인 노출과 채식주의자라는 낯선 서구적 주제가 불러일으킨 신선하고 실험적인 시도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⁴⁾ 그러나 2016년 ‘맨부커상’ 수상은 단숨에 『채식주의자』를 한국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현대 세계문학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의 작품으로 위상을 올려놓으면서 세계 주요 언론과 문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한국문학의 경우, ‘한국성’이라는 특성과 ‘세계성’이라는 보편성이 하나의 작품에 공존하기보다는 구분되는 지점으로 남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성’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지는 작품들이 민족문

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2008년 ‘1월의 입을 만한 책’으로 선정되고, 한국문화예술회원의 ‘2008년 1분기 우수 문학도서’로도 선정되었으며, 『채식주의자』에 실린 단편 <몽고반점>이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의 영화로 상영되어 여주인공의 파격노출로 관심을 받았고, 2011년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채식주의자』가 일본에서 2쇄에 들어갈 만큼 주목을 받았고, 2011년에는 베트남에서,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번역·출판되기도 했지만, 『채식주의자』에 실린 단편 <몽고반점>이 200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것 외에는 대중적인 돌풍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맨부커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훨씬 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 실렸던 서평(2015년 1월)을 살펴보면, “육감적이고, 도발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 작품은 압도하는 이미지와 놀라운 색깔, 그리고 충격적인 질문들로 가득 차 있다. *The Vegetarian*의 문장 하나하나를 놀라운 경험 그 자체다.”⁵⁾라고 극찬을 하면서도, 이 작품이 한국소설의 번역본이라는 사실을 서평 맨 마지막 줄에 짧게 한번 언급할 만큼 작품 작가의 국적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2015년 10월 미국의 저명한 「퍼블리셔즈 위클리」(*Publishers Weekly*)에 실렸던 서평 역시 본문에서 한국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이 저자 한강을 파트리크 쥐스킨트(Patrick Suskind), 헤르만 코흐(Herman Koch), 한야 야나기하라(Hanya Yanagihara)와 같은 현대 세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 급에서 비교하고 있다. 서평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뉜 작품의 구조와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파고드는 집중력,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우아한 문체를 호평하면서 “이 작품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부분은 치명적인 클라이맥스와, 몽환적이면서도 감정적으로 가장 충실한 순간으로, 올해 발표된 소설 중에서 가장 강렬한 흡입력”⁶⁾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구문학에서 영어번역 *The Vegetarian*이 수용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소설과 한국작가라는 정체성이나 색깔을 희석시키면서 세계문학이라는 문학 보편적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유입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문학의 정체성이나 한국문학이 가지는 소유권 혹은 주체성이 문화번역을 통해 상쇄되어지는 측면이 있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라는 정체

5) “It is sensual, provocative and violent, ripe with potent images, startling colours and disturbing questions. Sentence by sentence, *The Vegetarian* is an extraordinary experience.” Daniel Hahn (2015) “*The Vegetarian* by Han Kang, review—an extraordinary story of family fallout” *The Guardian*, 24 January 2015.

6) “There is much to admire in Han’s novel. Its three-part structure is brilliant, gradually digging deeper and deeper into darker and darker places; the writing is spare and haunting; but perhaps most memorable is its crushing climax, a phantasmagoric yet emotionally true moment that’s surely one of the year’s most powerful. This is an ingenious, upsetting, and unforgettable novel.” Gabe Habash (2015) “Fiction Book Review: *The Vegetarian* by Han Kang” *Publishers Weekly* 26 October 2015.

성과 가지게 되는 관계의 미묘함이 여기서 발견된다. 세계문학이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문화권 혹은 언어권 중심의 기득권이나 헤게모니는 유지하면서도, 한국문학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소수문학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언어적 기득권이나 헤게모니를 희석화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같은 맥락은 *The Vegetarian*의 영어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시각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의 홍보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분으로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않지만 드러나지도 않았던 작가의 국적’으로 꼽았다. ‘한국’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다른 문화로의 창’이란 진부한 방식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홍보 대상을 ‘한국에 관심 있는 독자’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학 혹은 번역문학에 관심 있는 독자’로 설정해 매출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박다혜 『머니투데이』, 2016년 6월 19일) 이 같은 관점은 단지 번역가 스미스의 개인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특히 해외출판사 편집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세계문학의 주류시장이 여전히 영미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에서, 작가보다는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출판문화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소수언어권 문학이나 작가들로 하여금 주류문학에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을 출판한 영국의 포트벨로 북스(Portobello Books)의 부편집자인 카 브래들리(Ka Bladley)가 영국에서 *The Vegetarian*의 성공의 비결을 설명하면서 “해외독자들에게 한국작품을 접하게 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한국의 소설 작품’이 아니라 ‘소설 작품인데 한국에서 쓰여진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미세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이다”(브래들리 2016, 47)라고 강조한 부분도 문학의 국적보다는 세계문학의 보편성이라는 가치의 합리화가 문화번역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세계문학의 보편성에 대한 한국문학의 관계설정이 세계문학에 대한 일방적인 저항이나 거부를 선택하기보다는, 문화헤게모니가 엄연히 상존하는 현실에서 전략적인 측면으로 도출어권, 즉, 세계문학의 흐름에 부합하는 작품이나 작가들의 번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외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세계문학 독자들이 한국문학의 고유한 가치와 표현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또한 현실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채식주의자』가 문학상을 통해 획득한 위상이나 위계성과, 해외에서 *The Vegetarian*으로 받은 ‘맨부커상’이 수반하는 위계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번역은 결국 한국에서의 『채식주의자』의 위상을 바꾸어 놓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독특한 주제와 실험적인 시도로 여성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제한적인 호평을 받은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손꼽히는 ‘맨부커상’의 수상작이 되면서, 작가 한강은 한국 출신의 작가 중에서 가장 세계 문단에 근접한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즉, 한국 밖에서 ‘맨부커상’ 수상을 통해 세계적인 작가군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에서 구축되어 있는 작가 한강의 위상과 타 작가와의 위계관계가 문화번역을 통해 전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복의 계기가 한국문학 밖의 외부적 요인, 즉 누가 한국문학을 평가할 수 있는지, 누구의 가치판단이 더 영향력을 가지는지와 같은 한국문학의 주체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번역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문학상과 해외문학상의 체계모니의 차이로 인해 해외 유수의 문학상의 수상은 한국에서의 기존의 작가나 작품의 위상이나 위계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번역의 충돌지점과 전복성을 확인할 수 있다.

3.3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의 특징으로는 독서과정에서 “동시대인의 공동 체험이나 집단적 심층 심리를 대변하는 사회적 산물”(이임자 1998, 3)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자들에게 유용한 도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표라는 긍정적인 기여와 함께, 팔릴만한 책만 출판되는 출판시장의 왜곡현상도 불가피하지만, 베스트셀러는 그래도 단순히 가장 많이 판매되고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시대의 독자성을 대변한다는 상징성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셀러는 하나의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장을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현상으로 정의한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보면 “베스트셀러는 여러 가지 욕망과 이데올로기들의 상징적인 투쟁이 이루어지면서 체계모니 쟁탈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김미현 2005, 190-191).

그렇기 때문에 문화번역의 공간에서 베스트셀러는 또 다른 형태의 헤게모니의 충돌 지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스트셀러가 자국의 문학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정 작품의 위상과 위계관계를 보여주며, 독자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문화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자국의 문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번역서가 도착어권 문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사이의 간극은 문화번역의 충돌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번역 *Please Look After Mom*의 경우도 흥미로운 문화번역의 사례가 될 수 있다. 2007년부터 1년간 <창작과 비평>에 연재된 후 2008년 11월 ‘창비’에서 출판된 신경숙의 장편소설은 출간 한 달 반 남짓 만에 한국출판인회의가 교보문고와 YES24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량을 집계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최재봉 『한겨레』 2009년 1월 9일). 이후 5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엄마를 부탁해』는 출간 10개월만인 2009년 9월, 100만 판매를 돌파하면서 최단기간 100만부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다(최현미 『문화일보』 2009년 9월 14일). 이후 미국 크노프 출판사에서 번역가 김지영의 영어번역을 통해 *Please look after mom*이 2011년 4월 5일 공식적으로 출간되고 하루 만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00위권에 들더니 사흘 만에 35위까지 급상승한 후(이윤미 『헤럴드경제』 2011년 4월 8일), 같은 해 11월에 아마존닷컴이 선정한 ‘문학·픽션 부문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뽑힐 정도로 미국 출판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중에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의 추천도서로도 올라가면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문학이 미국 출판시장에서의 이 같은 대중적 돌풍을 일으킨 것은 유례가 없던 일로서, 이 같은 관심과 돌풍은 역으로 한국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영향을 미쳐서, 2011년 4월 미국에서 영어번역본이 출판되자마자 국내에서도 2008년 출판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2011년 4월 첫째 주 한국출판인회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6위로 재진입한 후, 5월부터는 8주 가까이 1위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이어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할 만큼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임정식 『스포츠조선』 2011년 4월 8일).⁷⁾

7) 2011년 4월 첫째 주, 국내 서점 판매량을 합계해서 순위를 매기는 한국출판인회의의 배

이를 통해 한국의 베스트셀러 시장과 미국의 베스트셀러 시장 사이에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번역은 체계모니적 위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문학작품의 한국어번역이 한국 출판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이 파급력이 미국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역으로 한국 문학작품의 영어번역이 미국 출판시장에서 불러일으킨 파장은 역으로 한국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 두 개의 베스트셀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체계모니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문화번역의 충돌과 개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통적인 문학주체인 가족과 모성애를 무기로 평론가들보다는 대중들에게 다가간 『엄마를 부탁해』와는 달리, 비슷한 시기인 2007년 10월 ‘창비’에서 출간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국내 비평가들의 주목은 받았지만 작품의 파격적인 주제나 실험적인 전개방식으로 인해 출판 당시에는 국내 베스트셀러 대열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17일 ‘맨부커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출판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국내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입한 『채식주의자』는 2016년 7월 2째부터 한국출판인회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8주째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출판시장에서 독주를 하는 파장을 일으켰다(김계연 『연합뉴스』 2016년 7월 15일).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문화가 국내 독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생력보다는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인정이나 베스트셀러 현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⁸⁾, 본질적으로는 국

스트셀러 순위에는 6위로 진입했지만, 이미 인터넷서점 YES24 순위에서는 한글판과 영문판 모두 국내·국의 종합부문 1위로 올랐다. 신준봉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아마존 소설 톱 10 이끈 번역자 김지영 『중앙일보』 2011년 4월 9일.

8) 2007년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2016년 영어번역 출간에 대한 호평기사가 미국 주류 언론에 소개되면서 ‘맨부커인터내셔널상’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힘입어 2016년 2월 이후 국내 도서 판매가 20배 이상 급증했는데(이윤미 「한강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효과, 판매 20배 급증 『헤럴드경제』 2016년 4월 14일.) ‘예스24’에서는 ‘맨부커상’ 수상 하루 만에 판매량 1만 권을 돌파하며 최근 15년간 가장 빠르게 팔린 도서가 되었다.(권영미 「‘맨부커상’ 한강의 ‘채식주의자’ 올 상반기 출판계 살렸다 『news1 뉴스』 2016년 6월 27일.)

내 출판시장의 취약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베스트셀러의 문화번역 요소는, 결국 국내 베스트셀러 문화라는 하나의 헤게모니와, 동일한 작품의 외국어 번역이 해외 출판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해외 독자들의 뜨거운 선택을 받는 결과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헤게모니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헤게모니 사이에는 문화번역의 본질적인 특성상 접점과 함께 충돌이 발생하고 이 충돌지점에 두 헤게모니 사이의 위계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문화적 영향력과 상업적 주도권으로 만들어지는 베스트셀러 역시 이 같은 헤게모니의 위계관계와 충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단순히 한국어로 쓰인 문학텍스트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을 넘어서, 한국문학에 담긴 한국문학 내적인 헤게모니와 해외출판시장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이나 한국문학을 수용하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또 다른 헤게모니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위계관계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한국문학의 문화번역의 정의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화헤게모니의 충돌과정의 결과물로서 영어번역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놓여있는 이 같은 위계관계는 이 두 문화 사이에 발생하는 번역과정에 끊임없이 개입함으로써 번역이 이 같은 문화헤게모니의 충돌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관계 기저에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충돌하지만 대개의 경우 충돌은 공존으로 이어졌다가 그 공존의 상태를 지나면 결국은 흡수, 동화로 이어지는”(김윤진 2001, 33) 본질적인 헤게모니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번역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자칫 잘못하면 이론적 담론에 그치거나 문화번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어로 변형되면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보다는 문화연구학(Cultural studies)의 독점적인 주제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번역에 대한 논의를 문학번역에서 문화번역이 실제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지점과 공간에 대한 분석에 국한함으로써 번역학에서의 문화번역 연구의 범주를 설정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문화번역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교과서, 문학선집, 문학상,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교과서의 경우 한국문학의 내적 체계모니가 형성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해외의 교과서에 한국문학 영어번역이 실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문화번역 공간으로는 문학선집과 문학상,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문학선집과 문학상, 베스트셀러의 공통점은 문학텍스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각각의 요소들은 자국 문학세계에서 문화체계모니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 문학의 위계적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문제는 이들 각각의 문학에 내재된 문화체계모니가 번역과정에서 충돌하게 되면서 문화번역의 지점을 생성해낸다는 사실이다. 한국문학에는 문학선집과 문학상, 베스트셀러 문화를 통해 이미 내적으로 구축된 대표성, 즉 대표작가나 대표작품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내적인 위계관계와 전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을 통해 도착어권에서 번역선집으로 출판되고, 영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이 해외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고,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작품이 해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도착어권에서 번역을 통해 또 다른 종류의 한국문학의 문화체계모니가 만들어지는데, 도착어권에서 만들어진 문화체계모니가 역으로 한국문학 안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한국문학의 대표성이나 위계관계를 부정하거나 전복시키면서 한국문학의 주체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한국문학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주체가 한국내의 한국문학 평론가나 독자들인지, 아니면 도착어권에서 번역된 한국문학을 접하는 도착어권의 원어민 한국문학 전문가나 한국문학 평론가 혹은 현지의 독자들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문화번역되는 과정은 이 두 개의 체계모니의 힘의 논리, 즉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문학이 번역을 통해 도착어권에서 호평을 받고, 수상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은 한국문학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대한 오역 논의나 번역 충실성 평가의 시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오역 논의나 번역 충실성 평가를 통해 한국문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주체는 결국 한국의 한국문학전문가와 독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

으로써 한국문학의 주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은 문학번역의 차원에서보다는 처음부터 문화번역의 성격으로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학의 주체성과 소유권을 둘러싼 끊임없는 문화헤게모니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화번역의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9)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동식 (2010) 「한국문학 개념 규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9-69.
- 김미현 (2005)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 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1980~90년대 소설의 ‘아버지’ 담론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36: 189-217.
- 김윤진 (2001) 「문화 충돌과 번역의 문제점」, 『불어불문학연구』 45: 25-51.
- 김현 (1994)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권성우 편, 서울: 문학동네, 21-29.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 번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김효중 (2007) 「문학 번역과 문화적 문맥: 윤동주 시 영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83-105.
- 박진임 (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97-111.
- 박향선 (2002) 「한국 영역시 오류 원인 분석: 2000년 전후 국내외 출간 한영대역시집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3(2): 63-79.
- 스토리 존 (1995)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 신경숙 (2008) 『엄마를 부탁해』, 서울: 창비.
- 윤지관 (2001) 「번역의 정치학: 외국문학 번역과 근대성」, 『안과밖』 10: 26-47.
- 윤혜준 (1997) 『『노튼 영문학 앤솔로지』의 편집, 가격, 무게』, 『안과밖』 3: 110-139.
- 이승재 (2012) 「문학충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번역학연구』 13(1): 137-166.

- 이임자 (1998)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서울: 경인문화사.
- 이찬훈 (1998) 「대중문화와 헤게모니」, 『철학논총』 15: 175-201.
- 정은귀 (2014) 「번역의 윤리와 정치성: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세계문학 번역사」, 『Trans-Humanities』 7(2): 39-67.
- 조홍섭 (2000) 「영역의 사례연구: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오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203-227.
- 카 브래들리 (2015)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 1」, 『대산문화』 57: 47-51.
- 한강 (2007) 『채식주의자』, 서울: 창비.
- 한미애 (2011) 「문화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황순원의 『학』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205-229
- Fulton, Druce, ed. (2005)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Habash, Gabe (2015) “Fiction Book Review: *The Vegetarian* by Han Kang” *Publishers Weekly* 26 October 2015.
- Han, Kang (2015). *The Vegetarian: A Novel*. Trans. Deborah Smith. London: Portobello.
- Hahn, Daniel (2015) “The Vegetarian by Han Kang, review—an extraordinary story of family fallout” *The Guardian*, 24 January 2015.
- Khakpour, Porochista (2016) “‘The Vegetarian’ by Han Kang” *The New York Times Sunday Book Review*, February 2, 2016.
- McCann, David, ed. (2004)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Nichols, Richard, ed. (2011) *Modern Korean Drama: An Antholog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Shin, Kyung-sook (2011) *Please Look After Mom*. Trans. Chi-young Kim. New York: Knopf.

<참고 언론기사 자료>

권영미 「‘맨부커상’ 한강의 ‘채식주의자’ 올 상반기 출판계 살렸다」, 『news1 뉴

스』 2016년 6월 27일.

김계연 「베스트셀러 ‘채식주의자’ 독주 언제까지 ... 8주째 1위」, 『연합뉴스』
2016년 7월 15일.

박다혜 「데보라 스미스, ‘K-문학’ 표현은 쓰지 말자」, 『머니투데이』 2016년 6
월 19일.

신준봉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아마존 소설 톱 10 이끈 번역자 김지영」, 『중
앙일보』 2011년 4월 9일.

이윤미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아마존 35위 랭크 돌풍」, 『헤럴드경제』 2011
년 4월 8일.

----- 「한강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효과, 판매 20배 급증」, 『헤럴드경제』 2016
년 4월 14일.

임정식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베스트셀러 6위 재진입」, 『스포츠조선』 2011
년 4월 8일.

최윤필 「제37회 한국일보 문학상 후보작 점검」, 『한국일보』 2004년 11월 16일.

최재봉 「잇었던 어머니 찾게 한 ‘엄마를 부탁해」, 『한겨레』 2009년 1월 9일.

최현미 「장편 ‘엄마를 부탁해’ 100만부 돌파」, 『문화일보』 2009년 9월 14일.

[Abstract]

**Cultural Translation of Korean Literary Translation:
Location of Cultural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Lee, Hyung-ji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particular locations where cultural translation takes place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and analyze the hegemonic conflict points between the established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Korea and the emerging status of its English translation abroad.

Over the course of time the Korean literature has established its own hegemonic tradition which carries the representative cultural identity of Koreans. However, recently these vested rights of Korean literature in Korea have been challenged by the successful reception of the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which seems to have established its own canonical hegemony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with a different group of Korean writers including Shin Kyung-sook and Han Kang. The particular locations where two different cultural hegemonies conflict each other include school textbook, anthology, literary award, and bestseller. The succes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seems to present a different kind of hierarchy of the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 different kind of preference by publishers and reader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Eventually, the higher status of cultural hegemony of the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seems to influence, interfere and eventually subvert the existing hegemonic hierarchy of Korean literature in Korea. The questions of 'who does own Korean

literature?', 'who does have more authority about Korean literature' and 'who does know Korean literature more?' have become a critical point of cultural translation in the process and reception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se days.

▶ Key Words: Cultural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Cultural hegemony, Anthology, Literary Prize, Bestseller, *The Vegetarian*, *Please Look After Mom*

이형진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jinlee@sookmyu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2일